民族文化, 한국고전번역원
Journal of Korean Classics
2017, 第四十九輯, pp.227~260
http://dx.doi.org/10.15752/itkc.49.,201706.227
ISSN 1738-4648

17-18세기 조선의 鍼, 그 종류와 형태*

오준호**

차례

머리말
1. 『靈樞』 九鍼에 대한 인식
2. 조선후기 鍼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단서
3. 조선후기의 둥근[圓] 침
4. 조선후기의 모난[稜] 침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7-18세기 사료를 근거로 조선 후기 침의 종류와 형태를 고찰해 보았다. 중앙에서 공간된 의서들은 당대의 치료 기술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통신사와 필담을 했던 일본 의사들과 조선 의사들의 활동을 채록했던 문인들이 남긴 제한된 기록에 의지해야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료들을 통해 당시 사용되었던 침의 종류와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당시의 침은 크게 서슬(칼날)이 없는 침과 있는 침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經穴을 자침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침으로 圓鍼이라고 불리었으며, 같은 범주에 속한 침으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두께가 가는 經絡鍼과 圓利鍼이 있었다. 후자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는데 사용했던 腫鍼과 瀉血을 위해 피부를 찔러 상처 냈던 三稜鍼이 대표적이다. 종침의 범주에는 바소 등이 있었으며, 삼릉침의 특수한 용례로 인후침이 있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7-18세기 조선 의사들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오랜 고전인

*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 (K1767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황제내경』에서 이상적인 침의 모습으로 제시한 '九鍼'에 대해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원침, 원리침과 같은 용어들이 구침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침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毫鍼의 경우에는 구침 가운데 하나이고,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침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17-18세기 조선의 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옛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시의 침에 대한 기록을 사료로 삼았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침의 종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식을 통해 굴절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어떤 침들이 사용되었는지의 문제는 남아 있는 유물의 수집과 관찰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조선, 침, 의사학, 한의학

머리말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질과 질병이 달라지며 치료법도 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黃帝內經』「異法方宜論」에서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의 기후 차이와 사람들의 습성, 호발되는 질환, 주된 치법을 나열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명문화 했다. 지역에 따라 합당한 치료법이 다르다는 "異法方宜" 개념은 조선 전기 鄕藥 개발의 주된 명분으로 작용하였고, 조선 중기에는 『동의보감』 편찬을 통해 당시 주류 의학의 이론과 치법을 조선에 맞게 재편하데 이르렀다. 지역에 따라 기후는 물론 사회의 풍속과 나는 물산이 달랐기 때문에 질병과 치료의 지역적 특수성은 관념 속의 이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

인 과제였다.

호발하는 질병이나 생산되는 약재 차이에 비해 침과 뜸은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다. 물산의 차이로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만드는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중일 삼국에서 사용되었던 침의 모습은 적지 않게 달랐던 것 같다. 1748년(영조24) 일본에 통신사를 수행했던 良醫 조숭수는 일본에서 가는 毫鍼을 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毫鍼만을 거론한 것은 어째서 입니까. …… 끝이 가는 침으로 그것을 소통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1]라고 하며 일본의 침이 너무 가늘다고 지적하였다. 또 1777년(정조1) 연경 사행을 다녀온 李坤(1737~1795)은 당시 청나라 太醫院을 둘러보고 "鍼術에도 좋은 솜씨가 없다. 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에 비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매우 아파한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침은 너무 가볍고 또 뾰족하다. 淸의 것은 실상 본 푼수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이다."[2]라고 청과 조선에서 사용하던 침의 모습이 달랐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청의 침은 두꺼웠고 일본은 가늘었으며, 조선의 침은 그 중간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침의 모습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침의 형태나 쓰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조선에서 사용한 침에 대해 "九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毫鍼·提鍼[3]·圓利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쳤고[4] 신좌섭 등은 治腫에 한정하여 관련된 침을 설명하였으

1) 『朝鮮筆談』 坤 : 且鍼之類非止一二, 而獨擧毫鍼何也. ……, 其能以尖細之鍼, 通而行之乎.

2) 『燕行記事』, 「聞見雜記(上)」: 太醫院 …… 鍼術尤無善手, 其鍼比我國之製甚鈍, 故受鍼者頗以爲苦. 我人亦笑之, 然我國鍼甚輕且尖, 而此則實準於本分數而然矣.

3) 미키가 말한 "提鍼"은 "鍉鍼"의 오기인 듯하다.

4)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思文閣出版, 1991, 386면.

며[5], 오준호 등이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에 등장하는 조선 침의 명칭을 보고했을 뿐이다.[6] 한국 의학사에서 향약 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해 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비록 사료가 많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17-18세기 문헌을 통해 조선 후기 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靈樞』 九鍼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침의 형태는 '九鍼'으로 대표된다. 구침은 침의 기원이 되는 9가지 침의 종류로서, 鑱鍼·圓鍼·鍉鍼·鋒鍼·鈹鍼·圓利鍼·毫鍼·長鍼·大鍼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靈樞』에 빈번히 나타나는데, 특히 그 구체적인 형태와 쓰임은 『靈樞』의 「九鍼十二原」·「官鍼」·「九鍼論」에 주로 언급되어 있다.

구침은 『영추』에 언급된 이래로 침의 형태와 쓰임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적어도 문헌 속에서는 이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그러나 고증의 대상이었을 뿐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국의 경우 『영추』에서 묘사된 구침은 어느 시점 이후 단절되어 다른 문헌에서는 그 모습이나 쓰임에 대해 추가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전승되어 실재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후대 의서들에서 『영추』의 묘사에 근거하여 구침을 고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뿐이다[7][8]. 일본의 경우는 보다

---

5) 신좌섭·기창덕·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의사학』 7-1, 대한의사학회, 1998, 93~94면.

6) 오준호·차웅석, 「18세기 한일 침구학의 교류: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3-2, 대한경락경혈학회, 2006, 6~8면.

7) 구침을 고증한 대표적인 의서로는 1308년 『鍼灸適英集』, 1601년 『鍼灸大成』, 1624년 『類經圖翼』, 1742년 『醫宗金鑑』 등을 들 수 있다.

명시적이다. 1712년 일본에서 만들어진『和漢三才圖會』에는 당시 일본에 구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직접 설명되어 있다.[9] 뒤에 살펴보겠지만 통신사 의학 필담에 구침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일본 의사들이 자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침의 전통이 조선에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구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조선에서 사용한 침은 미키의 추측처럼 구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조선 후기의 침에 대한 인식은 일견 구침을 추존하는 듯 보인다. 조선 의학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東醫寶鑑』을 보면 구침에 대한 설명이「鍼灸篇」첫머리에 실려 있다. 이것은『영추』의 첫 편이 구침에 대한 설명을 싣고 있는「구침십이원」으로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침의 시원을 구침에서 찾은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의학 내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말에 조선의 物名을 정리한『재물보』[10]에서도 침의 종류로 구침을 거론하고 있다[11].

---

8) 청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醫宗金鑑』(1742)에 도상으로 표현된 구침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伍秋鵬,「清代及近現代傳世針灸針具實物擧例」,『中醫藥文化』3, 2015. 36면.),『영추』와의 시대적 차이로 보았을 때『의종금감』에서 복원한 구침을 치료 현장에 보급하여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당시 사용했던 침의 모습에 가깝게『의종금감』에서 구침의 모습을 상상하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9)『和漢三才圖會』권15,「藝財」: 按九針, 今悉不用之

10)『才物譜』는 1798년(정조 22) 李晩永(생몰 미상)이 자신이 모은 어휘 자료를 확장·편집하여 만든 백과사전식 어휘집이다. 수록된 항목의 내용과 체계, 각주의 설명 등이 자세하여 당시의 생활 문화를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8권 8책의 필사본(한古朝91-23)을 사용하였다.(『재물보』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백두현의 국립중앙도서관 해제에 근거함)

11) 미키는 당시 경성제국대학 소장의『재물보』에 당시 상용하는 침으로 鑱鍼·圓鍼·鍉鍼이 거론되었다고 하였다.(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 思文閣出版, 1991, 387면.)『재물보』는 이본이 많아 그의 언급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초고본에 가까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91-23)과 또 다른 이본인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을 검토해 본 결과 이들 서적들에는 모두 鍼 항목에 鑱鍼·圓鍼·鍉鍼·鋒鍼·鈹鍼·圓利鍼·毫鍼·長鍼·大鍼의 구침이 모두 실려 있었다. 미키가

이를 통해 의학 외부에도 침의 대표로서 구침이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어떠했을까?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구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을까? 당시의 침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사료들을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자.

2. 조선후기 鍼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단서

현재까지 알려진 사료 가운데 조선 鍼의 종류와 형태를 가장 상세히 전해주고 있는 자료는 18세기 조선통신사 문답 기록이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 정미사행을 시작으로 1811년 신미사행까지 약 200년간 1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필담창수집 180여종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학과 관련된 것은 40여종에 이른다[12]. 특히 일본의 요청으로 良醫가 파견되기 시작한 1682년 제7차 임술사행부터 의학필담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제8차 신묘사행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의학문답이 진행되었다[13].

조선 침의 명칭은 제8차 신묘사행 때의 『兩東唱和後錄』, 제10차 무진사

언급한 것은 이 구침 가운데 앞의 3가지이다. 미키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침을 보지 못하여 이렇게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2) 통신사 기록에 대한 연구는 그간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나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의학 관련 필담의 경우에는 김형태의 연구(김형태, 『통신사 의학 관련 필담창화집 연구』, 보고사, 2011.)와 김혜일의 연구(김혜일, 「朝鮮通信使醫學筆談錄에 대한 考察 : 醫學 文獻, 理論, 疾患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가 상세하다. 이들 연구에 해당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13) 허경진, 「조선 의원의 일본 사행과 의학필담집의 출판 양상」, 『의사학』 19-1, 대한의사학회, 2010, 137~138, 145, 149면.

행 때의『朝鮮筆談』과『桑韓醫問答』, 제11차 갑신사행 때의『兩東鬪語』에 각각 보인다[14].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먼저 약술한다.

1711년(숙종37) 제8차 통신사 신묘사행에서 對馬島의 鍼醫 무라카미 게이난(村上溪南)과 아들 무라카미 슈난(村上周南)[15]은 조선의 良醫 奇斗文[16]과 문답을 나누었다. 이 문답은 1711년 일본에서 3권 1책의 목판본『양동창화후록』[17]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18][19].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조선에서 사용했던 침의 이름이 등장한다.(사료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이하 같음.)

<사료 2-1>

○기공께 삼가 받들어 아룁니다. 제 성은 무라카미이고, 자는 슈난(周南)이며, 득응재가 자호로, 케이난(溪南)의 큰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자법은 毫針의 종류만 쓸 줄 알고, 鍉鍼을 놓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 자법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 두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오직 한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대체로 작은 침[毫微針]과 가는 삼릉침[細三稜針]은 모두 왼손 엄지손가락을 써서 혈을 눌러 찾고, 그 손톱 바깥쪽 끝을 취해 그곳을 찌릅니다.

○물음 슈난. 그 자법이 자세하지 않으니, 시험 삼아 제 몸에 침을 놓아서 가르침을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

---

14) 오준호・차웅석,「18세기 한일 침구학의 교류: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을 중심으로」,『대한경락경혈학회지』23-2,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6~8면.

15) 일본인 성명의 한글 표기는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16) 기두문은 호가 嘗百軒으로 당시 宣務郎 典涓司直長 朝散大夫였다.『桑韓醫談』

17) 1권은「兩東唱和後錄」, 2권은「兩東唱和別錄」, 3권은 부록 형식의「韓使官職姓名」이다.

18) 구지현・김형태(역주),『좌간필어부강관필담・양동창화후록』, 보고사, 2014, 69~70면.

19) 김혜일,「朝鮮通信使 醫學筆談錄에 대한 考察: 醫學 文獻, 理論, 疾患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4면.

○대답 두문. 그 자법은 이와 같습니다. (곡지·족삼리에 침을 놓았는데, 비록 그 침은 컸지만 참을 만한 아픔을 느끼지는 못했다.)

○물음 슈난. 다른 침법이 있습니까.

○대답 두문. 대종침·중종침·소종침. (이상 너비가 다른 3가지 침을 품 속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것은 濕熱이 응결되어 종기가 생겨 매우 아플 때 씁니다. (아래 글은 잃어버렸다.)[20]

이 대화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 슈난이 "毫鍼", "鍉鍼"이라고 질문한 것을 조선인 기두문은 "毫微針"과 "細三稜針"이라고 응대하였다. 둘째, 기두문이 지니고 있었던 침 가운데 종기 치료에 사용했던 대종침·중종침·소종침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셋째, 대화 당시 기두문은 무라카미의 곡지와 족삼리에 놓았던,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의 눈에는 커 보이는 침을 지니고 있었다.

1748년(영조24) 제10차 무진사행 때는 도호토(東都)의 醫官 가와무라 슌코(河村春恒)[21]가 통신사 일행과 필담을 나누었다. 당시 필담 기록은 『조선필담』 乾坤 2책의 필사본으로 전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1748년 『상한의문답』이 상하 2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당시 필담 내용은 대부분 의학에 대한 것으로, 이 문답에는 良醫 趙崇壽 및 의원 趙德祚, 金德崙 등이 등장한다[22]. 이 책에서 조선 침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0) 『兩東唱和後錄』 권1: ○謹奉稟. 竒公閤下. 僕氏村上, 字周南, 自號得應齋, 溪南之長子也. 我朝刺法, 知用毫針之類, 鍉針之法, 未知刺之, 伏冀垂示其刺法. ○答. 斗文. 言不相通, 唯以爲恨耳. 凡毫微針及細三稜針, 共用左手大指, 伏而按穴, 取其爪甲外之際, 而刺之. ○問. 周南. 其刺未審, 試刺僕之皮肉, 以明示教導. ○答. 斗文. 其刺法如此. (刺曲池足三里, 雖其針大, 不覺忍痛) ○問. 周南. 別法有針否. ○答. 斗文. 大腫針·中腫針·小腫針. (以上廣狹三針, 出於懷中, 示焉.) 此濕熱凝結, 因作腫甚痛者. (下文失之)

21) 가와무라 슌코(河村春恒)의 자는 子升·長因이다. 『朝鮮筆談』 乾.

22) 김형태(역주), 『조선인필담·조선필담』, 보고사, 175~314면.; 김혜일, 「朝鮮通信使 醫學筆談錄에 대한 考察 : 醫學 文獻, 理論, 疾患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

<사료 2-2>

6월 5일 …….

아뢈 가와무라 슌코(河村春恒). “그대는 지금 침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대의 침을 보고 싶습니다.”

대답 조덕조. “가져가십시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귀국의 鐵이 품질이 좋으니 장인에게 침을 만들게 하시려거든 침본으로 삼게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9가지 침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大腫鍼 [모양이 삼릉침과 비슷하고 크기는 5푼 남짓, 길이는 5치 남짓이다.], 中腫鍼 [대종침과 비슷한데, 작다.], 咽喉鍼 [그 모양이 마치 붓끝과 같다.], 經絡鋼鍼 [그 모양이 짧고 작다.], 小史鋼鍼 [그 모양이 가늘고 작으며 길다.], 三稜鍼 [크기별로 4가지가 있다.], “그대 나라에서도 이러한 침을 쓰십니까?”

아뢈 가와무라 슌코. “ 瘡瘍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들이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각기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을 뿐입니다. 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대게 毫鍼을 쓰는데,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간혹 철로 만든 침이 있습니다.”[23]

이 필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의관 조덕조가 지니고 있었던 침으로 大腫鍼・中腫鍼・咽喉鍼・經絡鋼鍼・小史鋼鍼・三稜鍼 등 조선에서 사용했던 침의 이름이 보인다. 둘째, 아울러 침은 철로 만든다는 조덕조의 인식도 드러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호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문, 2016. 23면.

23)『朝鮮筆談』乾: 稟 河長因. 君今持來鍼乎, 冀見公之鍼. 復 趙德祚. 卽持去, 何有難乎. 貴邦之鐵品好, 故欲使工作鍼, 看鍼本則可易. (卽出九鍼而示之) 大腫鍼(其形似三稜鍼, 大五分强, 長五寸余), 中腫鍼(似大腫鍼, 小者也), 咽喉鍼(其形加筆頭), 經絡鋼鍼(其形短小), 小史鋼鍼(其形細小而長), 三稜鍼(大小各四品), 貴邦用此鍼耶. 復 河長因. 瘍瘡家多用之, 各有異同耳. 專行鍼治者, 大抵用毫鍼, 多以金銀作之, 間有鐵鍼.

<사료 2-3>

물음(가와무라 슌코). 우리나라에 湯液家 외에 鍼醫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곧『素問』에서 말한 毫鍼이란 것을 씁니다. …… 그대가 생각한 것과 그대 나라에서 행하는 鍼法을 자세히 보여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대답(조숭수). …… 또 침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호침만을 거론한 것은 어째서 입니까. 혹시 침이 동쪽지방에 이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사방의 지역의 치료가 각기 다르지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圓鍼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이가 있고, 병에 얕고 깊은 것이 있으며, 경혈에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끝이 가는 침으로 그것을 소통시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24]

한편, 같은 책에 나오는 조숭수의 답변에서는 圓鍼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일본에서 호침을 주로 쓰는 것에 대한 의견과 조선의 침 사용법에 대한 질문에 조숭수는 병의 경중이 있는 만큼 호침뿐만 아니라 원침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사행에서 마쓰모토 오키나가(松本興長)는 조숭수가 이 때 언급한 원침을 보고 조선에 구침의 전통이 남아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조숭수가 말한 원침은 구침의 원침과는 다른 것이었다.

1764년(영조 40) 제11차 갑신사행에서는 에도의 口科侍醫였던 마쓰모토 요시이치(松本善甫)의 長子 마쓰모토 오키나가(松本興長)가 官命을 받아 통신사 일행과 필담을 나누었다.『양동투어』[25]는 당시의 문답을 정리한 2

24)『朝鮮筆談』坤: 問. 我國, 湯液家之外, 有針醫者, 其法, 卽用素問所謂毫鍼者, ……, 足下所慮與貴邦所行之鍼法, 詳示之幸甚. 答. ……, 且鍼之類非止一二, 而獨擧毫鍼何也. 抑有以偏利於東方而然耶. 四方之治, 雖各不同, 而只有微甚而已. 其可廢圓鍼歟. 人有强弱, 病有淺深, 穴有大小, 其能以尖細之鍼, 通而行之乎.

25) 연구에서 사용한 원문은 National Archives of JAPAN Digital Archive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이미지를 참조하였다.

권 2책의 책이다[26]. 요코타 준타(横田準大)[27]와 良醫 李佐國[28]의 필담에서 당시 이좌국이 지니고 있었던 침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사료 2-4>

○동원 요코타 준타(横田準大)가 물었다. "…… 선생의 나라에는 일찍이 이 구침의 법이 모두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과 같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선조에 향빙사로 공의 선관으로 오신 조숭수 선생이 우리나라를 보시고 '사방의 지역의 치료가 각기 다르지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원침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조선생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선생의 나라에서는 원침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 원침이 전해졌으면 다른 침들도 전해졌습니까? 제가 구침의 자법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전하여져 행하는 것이 한 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나라에는 이미 원침이 있고 또한 다른 침들도 사용되고 있고 선생께서도 그 사용법을 아시며 마침 가지고 오셨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 전하고자 합니다."

○모암 李佐國이 답하였다. "『영추』와 『소문』에 이미 구침의 법도를 밝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행하고 있으니 어찌 유독 원침으로만 병을 치료하겠습니까? 제가 마침 외과가 전문이 아니라서 다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유감입니다."

○동원이 물었다. "구침의 법이 어찌 외과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내과라고 해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의 나라에서 이를 존중하여 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선생께서는 그 침의 형태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암이 즉시 품에서 3가지 침을 꺼내서 말하였다. "큰 것은 破腫鍼 가운데 매우 작은 것으로,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三稜鍼

---

26) 김혜일, 「朝鮮通信使 醫學筆談錄에 대한 考察 : 醫學 文獻, 理論, 疾患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7면.

27) 요코타 준타(横田準大)의 자는 君繩, 호는 東原이다. 『兩東鬪語』 坤

28) 良醫 李佐國의 자는 聖甫, 호는 慕菴으로 당시 종9품 副司勇이었다. 『兩東鬪語』 乾

으로 경락을 취하는데 이 침도 큰 것이나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침은 圓鍼입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로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합하여 9침이 됩니다."

○동원이 말했다. "「구침론」에는 구침의 형태와 각각의 사용법과 치료하는 병이 실려 있는데, 이제 선생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 오직 세 가지 침이 나뉘어 9가지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영추』의 법과 어긋나니 행여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암이 거듭 대답하지 않았다.[29]

위의 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첫째, 무진사행(제10차)에서 조선 의관 조숭수는 가와무라 슌코에게 圓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본 요코타는 갑신사행(제11차)에서 조선에 구침의 전통이 남아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이좌국은 구침에 대해 잘 모른다는 뜻을 넌지시 비치고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침을 구침이라고 보여주었으나 요코타는 『영추』의 구침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좌국은 끝내 구침에 대해서는 적절히 답하지 못했다. 둘째, 이좌국은 자신이 외과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파종침·삼릉침·원침을 꺼내 보여주었다.

---

29) 『兩東鬪語』 坤: ○東原問曰 ……, 大邦嘗悉傳此鍼法耶, 抑又若日本未全傳耶. 先朝享聘使年公之先官趙先生示我邦, 謂四方之治, 雖各不同, 而只有微甚而已, 其可廢圓鍼歟, 趙公旣有斯言, 則貴邦有圓鍼而傳焉, 其有圓鍼, 則又有他鍼而傳焉. 僕私按九鍼刺法, 叚令能傳之於今似其術有一二難行者也. 然而大國已有圓鍼, 則又雖佗鍼有敢行之者, 君亦旣得其術耶, 適有裝中所齎來, 冀得一覽, 欲以傳子弟. ○慕菴荅, 靈素旣明九鍼之法, 弊邦遵而行之, 何獨以圓鍼治病乎, 僕非外科, 適無所齎, 不得奉副可恨. ○東原曰, 九鍼之法, 何啻外科, 雖內科不可忽也. 謂貴邦已遵而行之, 則君詳其鍼形, 願示諸. ○慕菴卽從懷中出三鍼曰, 大者, 破腫鍼之極小者也, 而有大中小三法. ○此是三稜鍼, 取諸經絡, 而此鍼亦大者, 而有大中小三法. ○此是圓鍼也, 此則中者, 而有大中小三法. 合爲九鍼矣. ○東原曰, 九鍼論載九鍼之形, 各有其法, 而治其病, 今視君之所示, 惟是三鍼分成九法, 蓋以差悖靈樞之法, 抑有他之所由而言之耶, 不審不審. ○慕菴重不荅.

이상 기록들에 등장하는 침들에 대해서는 이어 고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소한 이 문답에 참여한 의관들은 구침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는 점이다. 먼저 기두문은 질문 속의 "毫鍼"을 "毫微鍼"으로 받았다. 단순한 글자 차이지만, 질문자가 호침을 고유명사로 인식하고 발화한데 반해 기두문은 "毫"를 형용사 정도로 인식하여 "毫微"로 응대하였다. 호침이라는 단어 자체가 친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좌국의 문답에서는 보다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다. 요코타가 집요하게 구침에 대해 묻지만 그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니고 있던 침으로 구침을 설명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구침이 『내경』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물로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통신사를 수행했던 양의들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서 파견된 수준 높은 의사들이었다[30]. 따라서 이들이 구침과 관련된 질문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을 특수한 경우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미키의 추측과는 달리 구침은 추존해야 할 고전에 실린 이상적인 침의 형태였을 뿐이었다. 사실상 조선의 의가들은 구침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으며 임상 현장에서 구침이 통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치료 현장에서는 어떤 침이 사용되었을까. 침에 정통했던 趙光一에 대한 기록에서 "長短圓稜異制"라는 말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18세기 민간에서 활동했던 鄕醫로서 가죽 주머니 속에 여러 가지 침을 가지고 다니며 치료에 임했다고 한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사료 3-1>

조광일의 의술은 고방으로 탕약을 쓰는 것이 아니었고, 항상 작은 가죽

30) 허경진, 「조선 의원의 일본 사행과 의학필담집의 출판 양상」, 『의사학』 19-1, 대한의사학회, 2010, 149면.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다. 그 속에 銅鍼·鐵鍼 10여개가 있었는데, 길이가 길거[長]나 짧고[短] 모양이 둥글거[圓]나 모진[稜] 것이 서로 달랐다. 이것으로 癰疽를 가르고 瘡痏를 치료하며 瘀血을 풀고 風氣를 흩고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웠으니 바로 낫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침술에 정통하여 깨친 사람이었다.[31]

그가 사용한 침은 주로 銅이나 鐵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길이에 있어서 길고 짧은 차이가 있었고 모양에 있어서 둥글거나 모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전자는 침의 재료를 나타내고 후자는 침의 모양을 보여준다.

우선 조선 시대 침은 銅·銀·鐵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3-1>에서 조광일은 동침과 철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고, 『재물보』에는 "은과 철로 만드는데, 병에 찌른다."[32]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철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2-2>에서 수행 의관 조덕조는 자신의 침을 일본인에게 보여주며 일본의 철이 품질이 좋으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료 말미에 보이듯 당시 일본에서는 주로 금이나 은으로 침을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던 조덕조는 조선의 침 재료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 셈이다. 또한 조덕조가 품에서 꺼내 보여준 침의 이름에 '鋼'이라는 글자에서도 침의 재료가 철로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3]

그렇다면 당시 침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던 것일까? 조광일의 일화를 채록한 洪良浩(1724-1802)의 눈에 조덕조가 지닌 침은 "長短圓稜異制", 즉 길이에 있어서 길고 짧은 차이가 있고, 형태에 있어서 둥

31) 『耳溪集』 권18, 「傳·針隱趙生光一傳」: 其術不治古方使湯藥, 常以一小革囊自隨, 中有銅鐵針十餘, 長短圓稜異制, 以是決癰疽, 治瘡痏, 通瘀隔, 疎風氣, 起跛癘, 無不立應。蓋精於針, 而得其解者也.

32) 『才物譜』, 「人譜三·人倫·方技·醫」: 以銀鐵爲之, 以刺病

33) 清代 만들어진 침들도 은으로 된 것이 많았다. (伍秋鵬, 「從考古發掘和明淸傳世實物看九針的形制演變」, 『成都中医藥大學學報』 39-1, 2016, 122면.)

글고 모난 차이가 있어 보였다. 길고 짧은 차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둥글고[圓] 모난[陵] 차이라는 것은 송곳이나 바늘같이 원통형으로 생긴 침과 그렇지 않고 모서리나 날이 있는 침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圓'과 '陵'을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圓方"이라고 하지 않고 "圓稜"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각이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슬이 있어 자르거나 끊을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제 홍양호의 묘사를 길잡이 삼아 조선 침의 형태와 쓰임을 고찰해 보자.

3. 조선후기의 둥근[圓] 침

1) 圓鍼

오늘날 침이라고 하면 횡단면이 둥글고 끝이 뾰족하여 경혈을 자침하는데 사용되는 침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조선 후기에도 경혈 자침을 위해 이런 침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침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사료 2-1>에는 기두문이 슈난에게 침 찌르는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 曲池와 足三里에 놓았던 침이 등장한다. 슈난은 침을 직접 맞고는 "비록 그 침은 컸지만 참을 만한 아픔을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것이 경혈을 자침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조선의 침에 해당한다.

<사료 2-4>를 보면 그것이 바로 '圓鍼'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좌국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침을 파종침, 삼릉침, 원침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설명하였다. 파종침과 삼릉침은 그 명칭에서 조광일 일화에 나오는 '모난 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인 원침이 경혈을 자침하는데 쓰이는 침이 된다. 경혈을 찌르는 침은 침술을 펼쳤던 의원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었을 가장 기본적인 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좌국은 자

신을 외과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침은 경혈을 자침하는 침이 된다.

<사료 2-3>은 위의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확인 시켜 준다. 일본에서 호침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조덕조는 "圓鍼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호침은 일본에서 경혈을 자침하는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둥근 침'에 해당한다. 조덕조의 눈에는 호침이 낯선 것에 해당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호침의 역할을 하는 침, 즉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경혈을 자침할 때 사용하는 침에 대해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원침은 일본의 호침에 비해서는 두꺼운 침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원침이 일본 의사의 눈에는 두꺼워 보였으며(<사료 2-1>), 일본의 가는 침으로 얕은 병은 치료할 수 있겠지만 깊은 병에는 원침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덕조의 말(<사료 2-3>)에서는 조선 의관의 눈에 일본 침이 가늘어 보였다는 사실을 재차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원침은 『내경』에서 구침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원침과는 다른 것이었다. 구침 가운데 원침은 鍼體가 箭 같고 鍼尖은 계란같이 둥글다고 하였다[34]. 또 끝이 둥글어 피부를 비침습적으로 자극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이런 기록 때문에 일본에서는 피부를 마사지하기 위해 돌로 만든 침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였다[35].

하지만 조선에서 원침은 살 속으로 찔러 넣었던 것이 분명하다. 원침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다리가 아플 때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을 원침으로 관통[貫]시키거나[36], 나력에 직접 찔렀다고[刺][37]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38].

---

34) 『靈樞』, 「九鍼十二原」: 員鍼者, 鍼如卵形, 揩摩分間, 不得傷肌肉, 以寫分氣.

35) 『和漢三才圖會』 권15 「藝財」: 생각컨대, 구침은 지금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원침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로부터 온 돌로 된 침인데, 색은 아주 검고 길이는 2치 정도이며 약간 계란 모양과 같은 것으로 적괴를 문지르는데 쓰는 것이 이것이다. [按九針, 今悉不用之. 所謂員針, 自阿蘭陀來石針, 正黑色, 長二寸許, 微如卵形, 揩摩積塊者, 是矣.]

원침이 구침의 맥락 밖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 조선에서 구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18세기 조선에서는 원통형으로 횡단면이 둥글어 경혈에 刺入했던 침을 圓鍼이라고 하였다. 이 원침은 구침 가운데 원침과는 다른 것이며 일본의 호침보다 굵었다. 원침이라는 용어는 앞의 조광일의 일화(<사료 3-1>)를 비추어 보건대, 서슬이 있어 피부를 가를 수 있었던 모난 침[稜]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經絡鍼과 圓利鍼

원침과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범주의 속하는 것으로 경락침과 원리침을 들 수 있다. 경락침은『재물보』에서 "毫鍼, 長三寸六分 尖如蚊喙, 경낙침"이라고 한 용례가 보인다. 구침은 조선 후기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사료 2-1>의 기두문에 답변에서 그가 "毫鍼"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경험 의서에서 호침의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재물보』의 문구는 당시에 존재하던 호침을 따로 경락침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당대에 경락침이라고 명명되어 사용되던 침이 있었고, 이 침이 구침 가운데 호침과 유사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문구라고 이해해야 한다.

당시의 경락침을 호침에 대응시킨 것은『동의보감』에서 "경락을 조절하

---

36)『鍼灸經驗方』,「脚膝」: 변독(가래톳)에 …… 圓鍼으로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을 관통하여 자침하고 21장 뜸뜨면 완치된다. [便毒가랫돗, ……, 以圓鍼貫刺其核, 灸三七壯, 永差.]

37)『舟村新方』,「腫」(필사본): 나력이 처음 발생해서 농이 형성되지 않고 핵이 작을 때 뜸을 뜨고 원침으로 침을 놓으면 좋다. [瘰癧, 初發未膿核小時, 艾灸, 圓針刺之.]

38) 보통 침구치료 기록에는 어떤 침을 사용하였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침, 경락침, 원리침이 등장하는 치료 기록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변독이나 나력 등 외과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외과 치료에 주로 사용되던 腫鍼을 쓸까 염려되어 침의 이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고 통비를 없앤다."[39]라고 하였듯, 호침이 경락의 흐름을 조정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그 모양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호침과 차이가 있었다. <사료 2-2>에서 조덕조가 지니고 있었던 "經絡鋼鍼"은 철로 만든 경락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관찰하여 기록했던 가와무라는 호침과 유사하다고 적지 않고 "그 모양이 짧고 작다."라고만 하였다. 가와무라의 눈에는 조선의 경락침이 자신들의 호침과 다른 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화한삼재도회』에 수록된 호침의 도상을 보면 가늘면서 길게 묘사되어 있다. 가와무라가 호침을 연상하지 못한 것은 경락침이 일본의 호침만큼 가늘고 길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경락침은 일반적인 조선의 원침 가운데 길이가 짧은 것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의 눈에 일본의 호침은 어떤 범주에 속해 있었을까. 아마도 원리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1862년경 劉在建(1793-1880)이 펴낸 『里鄕見聞錄』에는 다음과 같이 신노인이라는 鄕醫가 일본에서 받아온 '삼릉침'과 '원리침'을 잘 사용했다는 일화가 나온다.

<사료 4-1>

내가 노인(신침의)이 침을 꺼내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니 圓利鍼은 순금으로 까끄라기처럼 가늘었고, 三稜鍼은 날은 쇠이고 자루는 금으로 되어 있었으니 다른 보통 침들과 달랐다. 내가 침에 대해 물어보자 노인이 말하였다. "나의 스승께서는 침을 잘 놓으셨는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병을 치료하여 낫게 하자 일본 의사가 의술이 자신을 뛰어 넘는다고 말하며 이 두 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이 침으로 병을 치료하여 신기한 효과를 많이 보아 항상 귀중하게 간직하셨고, 임종하실 때 나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 침으로 여러 사람의 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 닳아서 이제는 까끄라기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노인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도 이 침으로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였다.[40]

---

39) 『東醫寶鑑』, 「鍼灸篇」: 調經絡, 去痛痺.

침이 매우 가늘었다는 점,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일본에서 받아 왔다는 점에서 채록자가 원리침이라고 표현한 신노인의 침이 일본의 호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록자는 일본의 호침을 처음 보고 원리침으로 인식하여 "보통의 침과는 다른 원리침"이라고 묘사했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일본의 호침과 같은 침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이 가늘고 끝이 뾰족한 '원리침'이 존재하였다. 몸통이 둥글고[圓] 鍼尖이 날카롭다[利]는 의미에서 원리침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리침 역시 동일한 이름이 구침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원리침이 구침의 원리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구침이 사실상 쓰이지 않았으며, 앞의 호침, 원침 등이 구침의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그다지 깊은 관련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물지만 경락침과 원리침에 대한 용례를 경험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락침은 風濕의 邪氣로 인해 다리가 아플 때 三里穴을 찌르거나[41] 瘰癧으로 맺힌 멍울을 찌르는데[42] 사용되었고, 원리침은 나력이 난 부위[43]나 아프고 강직된 수족 부위[44]에 사용되었다. 이들 용례들은 서로 유사할 뿐

40) 『里鄕見聞錄』 권9 「申鍼醫」: 余見老人出鍼治病, 圓利鍼則純金而其細如芒, 三稜針則鐵刃而金柄, 有異於他. 余問之, 老人曰, "吾師善針, 入日本國, 治病得瘳. 日本醫人, 謂術勝於己, 以此二針贐之. 師丈以此針, 治病多奇效, 常珍之, 臨終傳于吾. 吾亦以此治幾多人病疾, 至今常存, 而年久摩挲, 今卽其細如芒." 老人歿後, 其子亦以其針多年治病.

41) 『實驗單方』, 「膝脛部」: 풍습으로 무릎 아래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삼리혈 두 곳을 경락침으로 3푼 깊이 찌르고, 두 혈에 동시에 뜸을 7장씩 뜬다. [以風濕膝下有內痛不仁者, 三里兩穴, 以經絡針三分, 兩穴同時, 各灸七壯.]

42) 『宜彙』, 「瘰癧」: 구슬을 꿰어놓은 것처럼 이어진 나력[瘰癧連珠]의 맺힌 멍울이 아직 곪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침으로 찌르고 백합 생것을 질게 찧어 붙인다. [瘰癧連珠結核未潰者, 以經絡針刺之, 用百合生者, 爛擣付之.]

43) 『醫彙』, 「瘰癧」: 원리침으로 찌르면 신묘한 효과가 있다.[圓利針刺之, 爲妙.]

44) 『鍼灸經驗方』, 「脚膝」: 손과 발의 근육이 강직되어 잘 쓸 수 없는 경우. 원리침으로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원침의 용례와도 비슷하다. 원침, 경락침, 원리침이 사실상 동일한 범주의 침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조선에서는 몸통이 원통형으로 모서리가 없는 침을 圓鍼으로 통칭했으며, 크기나 형태의 차이에 따라 圓利鍼, 經絡鍼 등으로 세분하여 지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4. 조선후기의 모난[稜] 침

조광일의 일화에서 모난[稜] 침이라고 한 것은 침의 몸체에 날카로운 모서리, 즉 서슬이 있는 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서슬은 형태상 무언가를 끊거나 자르기 위한 것으로, 침에 있어서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절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들 침을 腫鍼과 三稜鍼이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에서 작성한 통신사 기록에 종침과 삼릉침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사료 2-1>에는 大腫鍼・中腫鍼・小腫鍼이, <사료 2-2>에는 大腫鍼・中腫鍼・三稜鍼이, 그리고 <사료 2-4>에는 破腫鍼과 삼릉침이 등장한다. 이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사 수행 의관들은 공통적으로 腫鍼과 三稜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 침들은 원침과 비교하였을 때 서슬이 있다는 차이 외에도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의원들이 여러 가지 크기의 것을 함께 소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직된 근육의 4-5군데를 관통하여 찌른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환자를 돕게 하여, 펴져 강직된 것은 굽히고 굽어 강직된 것은 펴게 한다. 나을 때까지 한다. 매우 효과가 좋다.[手足筋攣蹇澁, 以圓利鍼, 貫刺其筋四五處, 後令人强扶病人, 病處伸者屈之, 屈者伸之, 以差爲度, 神效.]

1) 腫鍼

종침은 이름 그대로 옹저 등 腫氣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 가와무라가 길이와 너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납작하고 긴 모양이었을 것이다. 종기가 난 부위나 종기의 크기에 따라 사용되는 종침 크기가 달랐는데, 조덕조가 가지고 있었던 대종침은 너비가 5푼 정도, 길이가 5촌 정도였다고 한다. 1치를 대략 3cm 정도로 보고 환산해 보면 너비 1.5cm에 길이는 15cm가 된다.

종침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기두문이 "濕熱이 응결되어 종기가 생겨 매우 아플 때" 사용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좌국이 "破腫鍼"이라고 한 부분에서 종기를 침습적으로 절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침이 피부를 절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17세기 활동했던 白光玹의 치험례에서 확인된다. 그는 아래와 같이 虫病에 종침으로 침을 놓고 曲鍼으로 벌레를 꺼냈다고 한다.

> 持平 金演의 아내는 바로 松峴에 거주하는 신 申尙書의 딸이다. 오른쪽 하복부에 찌르듯이 통증이 있은 지 한 달 넘었는데, 치료해도 효험이 없었다. 상서께서 공에게 "두 달 동안 병이 깊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한 번 진찰하면 원인을 변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셨다. 공이 진찰한 뒤에 "이는 虫病입니다. 痰이 뭉쳐 변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腫鍼으로 침을 놓고, 曲鍼으로 긴 벌레 한 개를 꺼냈는데 몸이 크고 길이가 한 자 남짓 되었다. 상서께서 매우 진기하게 여기시면서 "만일 오늘 귀신같은 안목이 없었다면 나의 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셨다.[45]

---

45) 『知事公遺事』, 「經驗方」: 金持平演室內, 卽松峴申尙書女也. 右邊下腹, 刺痛月餘, 醫治無效. 尙書問於公曰, "沉病兩月, 今至垂死, 而尙未執症. 君若一診, 則症可辨矣?" 公診曰, "此, 虫病也. 痰滯化成, 而作痛." 遂以腫鍼鍼之, 以曲鍼取出一條虫, 體大而長尺餘矣. 尙書大異曰, "若無今日之神眼, 則幾喪吾女矣."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일본 杏雨書屋 복사본 기준, 이하 같음)

백광현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髮瘕[46]를 치료하기도 하였는데, 본문에서 모두 종침으로 "침을 놓다[鍼]"라고 하였지만 곡침으로 피부 속에서 벌레를 꺼냈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부를 절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기 치료에 피부를 절개했던 방법은 16세기 치료 기록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治腫指南』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사료 5-1>

침으로 찢을 때에는 네 방위를 정하고 깊이를 헤아린 후 우선 乾方을 찢어 巽方에 이르게 하고 다음으로 艮方을 찢어 坤方에 이르게 하면, 침이 지나간 두 길이 '十'자 형태와 같아서 모두 비스듬히 직각을 이루어 나쁜 피가 쉽게 흘러나온다. 혹은 찢을 때에 艮方에서 시작해서 한가운데까지 찢고, 또 坤方에서 시작해서 한가운데까지 찢어서 서로 마주하게 하여 이어서 찢어지게 하면 침끝이 더 잘 들고 환자도 몹시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침은 5푼 깊이까지 넣는다.[47]

〈그림 1〉 十자 절개 도상

46) 『知事公遺事』, 「經驗方」: 此古所謂髮瘕也. …… 遂以腫鍼鍼臍傍, 以曲鍼取出白虵, 長尺餘, 其狀如蛇.

47) 『治腫指南』, 「背腫圖」: 用鍼決破之時, 定其四方, 審其深淺, 先破其乾而至于巽, 次破其艮而至于坤, 則針之兩道, 如十字形, 皆斜直而惡血易流. 或次破時, 自艮而至于中, 又自坤而至于中, 相對連裂, 則針鋒易利, 患者亦不甚痛. 針入五分. (일본 早稻田大學 소장본 기준)

『치종지남』의 '十'자 절개술(<그림 1> 참조)은 통신사 기록과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18세기 종침의 용법이 『치종지남』의 그것과 같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치법이 후대에 전승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18세기 통신사 기록에 나타난 腫鍼의 쓰임도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상고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치종지남』에는 "鋒鍼"이라는 용어는 보이지만 "종침"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48] 백광현의 기록에서는 종침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종침이라는 명칭이 『치종지남』 편찬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바소

종침과 비교해야할 침으로 구침 가운데 鈹鍼과 鋒鍼이 있다. 『영추』에 묘사된 피침의 형상은 길이가 4치, 너비가 2푼 반으로 침 끝이 칼끝 같고, 납작하고 서슬이 선 침으로 화농을 터뜨리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49] 이러한 설명은 腫鍼과 유사해 보인다. 마침 『재물보』에서는 鈹鍼을 "바소"[50]라 한다고 하였다.

앞의 경락침의 예와 같이 조선에서는 피침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인조 11년 치료에서 당시 이형익이 번침을 시술하던 경혈에

48) 신좌섭 등(신좌섭 · 기창덕 ·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의사학』 7-1, 대한의사학회, 1998, 93면.)이 『치종지남』에 나온다고 보고한 '종침'은 "當腫針破一孔"과 "當腫針刺三四處"를 오역한 결과이다. "當腫"은 종기가 생긴 곳을 의미하는 "當腫處"를 뜻한다. 이는 『치종지남』 내의 "當腫"과 관련된 여러 용례로 확인된다. 따라서 『치종지남』에는 腫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49) 『靈樞』, 「九鍼十二原」: "五曰鈹鍼, 長四寸, 廣二分半", "鈹鍼者, 末如劍鋒, 以取大膿."

50) 『才物譜』, 「人譜三 · 人倫 · 方技 · 醫」: 鈹鍼, 一名破鍼, 長四寸廣二分半, 末如釰鋒, 바소.

피침을 놓았는데, 人中・大淵・耳前・承漿・大稜・內庭의 경혈에 鈹鍼으로 受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51] 이 기록에 등장하는 '피침'은 구침 가운데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해당 경혈들은 침으로 절개할 이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19세기 『解惑辯疑』에서 피침을 "大鍼"[52]이라고 풀이한 점에서도 구침 가운데 피침이 분명히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물보』의 설명은 앞의 호침의 예와 같이 피침을 바소라고 불렀다고 이해해서는 안되며, 피부 절개를 위해 당대에 바소라고 불리우는 침이 사용되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2) 鋒鍼

봉침 역시 구침으로서 『영추』에는 삼릉침과 유사한 형태로 3개의 서슬을 가지고 있었던 침으로 묘사되어 있다.[53] 여기에서 봉침을 굳이 언급한 것은 『치종지남』에서 봉침의 용례가 다음과 같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사료 5-3>
> 군살이 눈동자를 찌르거나 눈 밖으로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우선 曲針으로 군살을 꿰어내고 즉시 鋒針으로 잘라낸다.[54]

이를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추정되는 曲鍼으로 군살[贅肉]을 꿰어내어 봉침으로 잘라냈던[割取] 것을 알 수 있다. 『사의경험방』에서는 이를 "縫針으로 그 뿌리를 꿰뚫어 잡아당긴 뒤 大鍼 칼날로 잘라낸다."[55]라고 표현하

---

51) 『승정원일기』(탈초본 41책) 인조 11년 10월 3일 임술

52) 『解惑辯疑』, 「醫學正傳五」: 鈹鍼 音피大鍼.

53) 『靈樞』, 「九鍼十二原」: 四曰鋒鍼, 長一寸六分, …… 鋒鍼者, 刃三隅, 以發痼疾.

54) 『治腫指南』, 「證治・眼疾」: 若胬肉侵睛突出眼外, 先以曲針掛引胬肉, 卽以鋒針割取.

였다. '縫'이 '鋒'의 오기인지, 아니면 실을 연결한 바느질용 바늘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상 모호한 면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치종지남』의 치료 맥락에서는 봉침이 구침으로서가 아니라 피부 절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삼릉침

삼릉침에 대한 용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지만 삼릉침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사료 2-2>와 <사료 2-4>에서 삼릉침도 종침과 같이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삼릉"이라는 이름을 통해 서슬을 3개 가진 침이었다는 사실도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횡단면이 삼각형으로 침 끝에 3개의 모서리를 가진 침을 삼릉침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가와무라가 조덕조의 대종침에 너비와 길이를 적고 "모양이 삼릉침과 비슷하고"라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그 모양이 오늘날의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와무라의 묘사처럼 이국인의 눈에는 종침과 유사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종침과 삼릉침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침이었다. 통신사 필담 기록에 양자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으며, 삼릉침의 용례에는 경혈이나 絡脈을 "찌른다[刺]"라고 표현되어 있다. 삼릉침이 瀉血을 목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피부를 가르는 종침과는 이 부분에서 명확히 차이가 난다.

(1) 咽喉鍼

삼릉침 가운데 특수한 것으로 '인후침'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 <사료

55)『四醫經驗方』,「目部」: 以縫針貫其根引之, 大鍼刃斷之.

2-2>에서 조덕조는 인후침을 가지고 있었다. 가와무라는 인후침을 보고 "형태가 붓끝과 같다."고 묘사하였다. 가와무라 슌코의 설명과 인후침이라는 명칭은 『신응경』에 소개된 咽喉腫閉의 치법에 나오는 침을 가리킬 개연성이 높다.

<사료 5-4>

목이 붓고 막힌 증상이 심한 경우. 合谷·少商을 쓴다. 가는 三稜針을 붓대롱 속에 숨긴 채 이런저런 말로 주의를 돌리면서, 沒藥을 붓고 아픈 곳에 바른 후에 침을 찌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자가 두려워하므로 병을 낫게 할 수 없다.[56]

목이 막히는 증상은 기도를 막는 결과로 이어져 생명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곧바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붓대롱 속에 삼릉침을 숨겨 자침하는 『신응경』의 방법은 바로 이런 치법을 설명한 것이다. 『신응경』에는 인후침이라는 명칭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후침이라는 이름은 원침이나 삼릉침과 같이 침의 형태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종침과 같이 사용되던 치료 대상 질병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인후에 침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덕조의 인후침은 『신응경』에 묘사된 치법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와무라가 본 것은 실제로 붓이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삼릉침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된다.

(2) 鍉鍼

삼릉침과 비교할 것으로 구침 가운데 鋒鍼과 鍉鍼이 있다. 봉침은 앞서

56) 『神應經』, 「咽喉部」: 咽喉腫閉甚者, 合谷少商. 以細三稜針藏於筆管中, 戲言以沒藥點腫痺處, 乃刺之, 否則病人恐懼不能愈疾.

살펴본 바와 같이 『영추』의 묘사에서 삼릉침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치종지남』에는 삼릉침보다는 종침에 가깝게 설명되어 있다.[57] 용례가 제한적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선에서 봉침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다음으로 시침이 있다. 시침은 『영추』에서 길이가 길고 끝이 가늘어 기를 이르게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맥을 누르되 들어가지 않게 한다[按脈勿陷]"라고 하여 원침과 같이 비침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시침에 대한 치료 용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통신사 수행 의관이었던 기두문은 시침을 "細三稜鍼"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사료 2-1>을 보면, 무라카미 슈난이 '시침'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두문은 '작은 삼릉침[細三稜]'이라고 받았다. 이를 통해 그가 시침을 가는 삼릉침 정도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침 역시 관련 용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 보인다.

맺음말

지금까지 17-18세기 조선의 임상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침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公刊된 의서의 경우 당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서에서 침 치료를 표현할 때 "鍼"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이어서 치료 기록 내에서 어떤 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의서 이외에 제한된 사료들을 사용해야만 했다.

57) 『靈樞』, 「九鍼十二原」: 三曰鍉鍼, 長三寸半, …… 鍉鍼者, 鋒如黍粟之銳, 主按脈勿陷, 以致其氣.

다행스럽게도 조선 의관들이 사용했던 침의 명칭과 모양은 통신사와 필담을 했던 일본 의관들의 기록에 그 대강이 남아 있었다. 또 조선 후기의 일화를 채록한 몇몇 기록에서도 채록자들의 눈에 비친 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의 침은 크게 서슬이 없는 침과 있는 침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경혈을 자침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침으로 횡단면이 서슬없이 원통형이었기 때문에 "圓鍼"이라고 불리었으며, 같은 범주에 속한 침으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두께가 가는 經絡鍼과 圓利鍼이 있었다. 후자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는데 사용했던 "腫鍼"과 瀉血을 위해 피부에 상처를 냈던 "三稜鍼"이 대표적이다. 종침의 범주에는 바소 등이 있었으며, 삼릉침의 특수한 용례로 인후침이 있었다. 아울러 조선의 침들은 주로 철로 만들어졌으며, 종침과 삼릉침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7-18세기 조선 의사들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오랜 고전인『황제내경』에서 이상적인 침의 모습으로 제시한 九鍼에 대해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원침, 원리침과 같은 용어들이 구침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침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毫鍼의 경우에는 구침 가운데 하나이고,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침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17-18세기 조선의 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옛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시의 침에 대한 기록을 사료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치료 현장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침의 종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식을 통해 굴절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어

떤 침들이 사용되었는지의 문제는 남아 있는 유물의 수집과 관찰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58]

58) 침 유물의 경우, 연세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경희대학교 박물관, 한독의학 박물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許浚,『東醫寶鑑』(남산당, 1998)
村上溪南,『兩東唱和後錄』(보고사, 2014)
松本興長,『兩東鬪語』
『神應經』(『韓國醫學大系』, 여강출판사, 1988)
劉爾泰,『實驗單方』
『靈樞』
錦里散人,『宜彙』(『韓國醫學大系』, 여강출판사, 1988)
洪良浩,『耳溪集』(『韓國文集叢刊』제24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0)
劉在建,『里鄕見聞錄』(민음사, 1997)
李晩永,『才物譜』
河村春恒,『朝鮮筆談』(보고사, 2014)
申曼,『舟村新方』(필사본)
『知事公遺事』
『治腫指南』
許任,『鍼灸經驗方』(『韓國醫學大系』, 여강출판사, 1988)
李眞夏,『解惑辯疑』(『韓國醫學大系』, 여강출판사, 1988)
寺島良安,『和漢三才圖會』

<단행본>
구지현·김형태(역주),『좌간필어부강관필담·양동창화후록』, 보고사, 2014.
김형태,『통신사 의학 관련 필담창화집 연구』, 보고사, 2011.
김형태(역주),『조선인필담·조선필담』, 보고사, 2014.

<연구논문>
김혜일,「朝鮮通信使 醫學筆談錄에 대한 考察 : 醫學 文獻, 理論, 疾患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신좌섭·기창덕·황상익,「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의사학』7-1, 대한의사학회, 1998.

오준호 · 차웅석, 「18세기 한일 침구학의 교류: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경락경혈학회지』23-2, 대한경락경혈학회, 2006.

허경진, 「조선 의원의 일본 사행과 의학필담집의 출판 양상」, 『의사학』19-1, 대한의사학회, 2010.

伍秋鵬, 「清代及近現代傳世針灸針具實物擧例」, 『中医藥文化』3, 2015.

伍秋鵬, 「從考古發掘和明清傳世實物看九針的形制演變」, 『成都中医藥大學學報』39-1 , 2016.

<인터넷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검색일: 2016.05.14.)

백두현, 「재물보 초록내용/해제내용」,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검색일: 2016,04,06)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BZ-2101 (검색일: 2016.05.1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 (검색일: 2016.02.0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16.02.16.)

National Archives of JAPAN, “National Archives of JAPAN Digital Archive.”, https://www.digital.archives.go.jp (검색일: 2016.03.05.)

Abstract

The Types and Forms of Acupuncture Needles from the Chosŏn Period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Oh, Jun-ho*

In this study, I examine the types and forms of acupuncture needles used from the late chosŏn period. My research is based on historical records that range from the 17th through 18th centuries. The books on medicine published at the kingdom's center had limitations, in that they failed to provide a specific description of contemporary therapeutic skills. Therefore, this study had to rely on the limited amount of records left behind by Japanese medical doctors who wrote their conversations down with Korean diplomats and the men of letters who kept track of the activities of Korean medical doctors.

Fortunately, such historical records provide an idea about the types and forms of the acupuncture needles used during those times. Acupuncture needles in those days were either with or without a blade. The former, which was usually used for acupuncturing the meridian, was called Wŏnch'im ('round needle'), and the same group included Kyŏngnakch'im ('meridian needle') and Wŏllich'im that were shorter and thinner. The representative needles of the latter group were Chongch'im('abscess needle'), which was used to make skin incisions for the purpose of treating boils, and Samnŭngch'im, which was used to make cuts in skin for the purpose of bloodletting. The category of Chongch'im included baso, while inhuch'im was a special instance of Samnŭngch'im.

Notably, the doctors who operated in chosŏn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ere not so interested in Kuch'im, which was described as the ideal acupuncture needle in Huangdi Neijing(The Emperor's Inner Canon), an old classic i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While it is possible that terms like Wŏnch'im and Wŏllich'im derived from Kuch'im('the nine needles'), they were used in a totally different context than Kuch'im. Hoch'im was especially preferred as one of 'the nine needles' and was in popular use in Japan, but it was never used to refer to an acupuncture needle in chosŏn. So, to understand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E-Mail : junho@kiom.re.kr

the acupuncture needles of chosŏn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y, discussion must develop unfettered by 'the nine needles'.

As the study takes as its historical materials the records on the old acupuncture needles as viewed by the contemporary people, it can clearly show how types of acupuncture needles were perceived by ancient therapy practitioners. Also, as the records accepted the descriptions reflecting their view, they may appear different in our eyes. Therefore, more light needs to be shed on what kind of acupuncture needles were used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rough collecting and examining remaining artifacts. I look forward to further studies.

〔Key words〕 Chosŏn, Acupuncture needle, Medical histor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논문접수일 : 2017. 04. 11. 심사완료일 : 2017. 06. 02. 게재 확정일 : 2017. 06. 23.